경제인협회 상속 세미나

"유언장, 무제한 세금 공제 또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합니다"

텍사스 한국 경제인협회 '상속 세미나' 개최, 40여 한인 참석 '대성황'

텍사스 한국 경제인협회(TKBA, 회장 이인선, 이하 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상속 세미나가 40명 넘는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25일(토) 오전 10시 파머스 브랜치에 소재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달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혜진 변호사는 2000년 12월 달라스에 소재한 남감리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학위(J.D.)를 받고 그후로 줄곧 패트릭 라이트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Patrick Wright)에서 지금까지 2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 어렵게 모은 재산 내가 원하는데로 분배가 될까?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무제한 배우자 공제 ▲ 영주권자(LPR) 배우자-QDOT을 통한 공제 제한적 허용 ▲ 유언장이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효과 등의 주제를 다뤘다. 다음은 정혜진 변호사의 세미나를 요약한 내용이다.

누구에게나 확실히 찾아오는 죽음이지만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텍사스는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 State)에 속한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 소유로 간주된다는 뜻으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의 분할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의사가 아니라 법적 · 세무적 문제로 직결된다. 이때 유언장(Will)이 없다면, 텍사스 무유언 상속법(Intestate Succession)에 따라 자동으로 재산이 배분된다. 하지만 이 법적 배분 방식은 개인의 의도나 가족 상황(재혼, 자녀 유무, 해외 가족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족 간의 분쟁, 불필요한 세금 부담,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금융자산이 전부이고 금융기관에 본인의 사망시 누구에게 자산이 귀속되는지 문서로 신청확인이 된 경우엔 그대로 집행이 되지만 부동산이 연

경제인 협회 주최로 지난 25일 열린 상속 세미나에서 정혜진 변호사가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루된 경우 망자의 자녀가 누군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을 거쳐 망자의 자손이 혹시 해외나 미국 어디엔가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시간은 물론이고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자식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변에 있는 자식만이 망자의 자식이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 배우자가 있고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공동재산은 100% 생존

우리 종합 보험
WOORI INSURANCE AGENCY
FARMERS INSURANCE
"고객님께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어 가입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SMART WOORI
972.239.9100 (전화 및 문자)
tum@farmersagent.com | woorifarmers@gmail.com
5068 W Plano Pkwy #274, Plano, TX 75093
대표 Brian Um 엄태곤
· Georgia State University : MBA
Risk Management & Insurance(보험전공)
· 삼성화재 : 11년 근무
Financial Risk & Investment Manager
· FRM : Financial Risk Manager
집보험 | 건강보험 | 생명보험 | 사업체 보험 | 자동차 보험 | 연금(투자)